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4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구속의 진행을 가르치심(1)

시작하는 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태초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나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상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죄의 사실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인 줄만 알고 있는 인류에게, 자신들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인류의 상태를 명백히 알도록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 인류의 현주소와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진행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1. 하나님은 유월절 행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출12:1-13]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10일에 준비하고 14일 해질녘에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상하 인방에 발랐다. 그리고 식구들은 집 안에 있어야 했고 그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했다. 이것은 10일에 양을 준비한 것은 예수께서 10일에 성전 청소를 하시므로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실 준비가 된 것을 표상하며 14일 유월절 양을 잡은 것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14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표상하며 그 고기를 식구들 각 개인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어야 할 것을 표상한다. 또 유월절에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결코 나가야 할 것을 표상한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출12:40-42]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41 사백삼십 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2.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세상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표상하는 사건이다.

[고전5: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히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미 앞 문체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피를 바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리는 행위를 하게 한다.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주 적절하게 표상하는 것이다.

3. 이스라엘은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출13:17,18]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향오를 지어 나올 때에.

[출14:21-24]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

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시78:13]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시136:13,14]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홍해를 건너는 일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전10:1,2]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롬6:3-6]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이것은 세상과 내가 아무 상관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다음 말씀이 이런 사실을 표상하는 내용이다.

[출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 하나님께서는 육로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으나 당시 그 지역의 전쟁 상태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인류 구원의 표상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구원의 계획의 한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홍해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이 침례를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홍해(紅海)는 붉은 바다라는 뜻이다. 붉은 것은 피의 색깔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경험을 한 사람이다.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것을 침례의 표상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찬탄할

만하지 않는가!

5.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아가서 생활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교회 생활을 표상한다.

[출16: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이 월 십오일이라.

[행7: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 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신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행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를 표상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것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 교회 생활하는 것을 표상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애굽 곧 죄와 죄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경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생활 경험들을 표상하는 것들이다.

6.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표상한다.

[출13:21,22]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민9:18-2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19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20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으며 21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시105:39]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시78:14]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시99:7]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계2:7,11,17,29, 3:6,13,22]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

●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성경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7.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양식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 성경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출16:31-35]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낫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2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36 오멜은 에바 십분의 일이다.

[요6:31-36]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신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요6: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분의 말대로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 그들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끊어지는 것은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

8.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표상한다.

[출17:1-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때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 반석=추르(צור) 땅의 반석

[민20:8-11]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 반석=셀라(סֶלָה) 높이 솟은 반석

[시78:15,16]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16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요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58:11]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 반석에 물이 나게 한 것이 두 번 있었다. 그 처음은 신(**𐤓𐤍**, SIN)광야 르비딤인데 이때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 추르는 땅에 있는 반석을 뜻하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치라”(출 17:6)고 하셨다. 이것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나 민수기에 있는 사건은 40년이 그의 끝난 때 신(**𐤓𐤍**, ZIN)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것인데 반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쉐라이다. 이것은 높은 곳에 솟아있는 반석을 가리키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민 20:8) 물을 내라고 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이 우리의 기도만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모세는 이때 반석을 친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민 20:10-13, 시 106:32,33).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이 두 광야가 모두 “신”광야로 번역되어 있어서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는가 하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는 “신(**𐤓𐤍**, SIN)” 광야이고 하나는 “진(**𐤓𐤍**, ZIN)” 광야이다.

마치는 말: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거든 오늘날 불순종하면서 어찌 천국을 기대하겠는가! 다음과에 광야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을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다.